

# 대북제재가 북·중경협에 미치는 영향<sup>\*</sup>

림금숙 (연변대학교 교수)

- I. 서 론
- II. 대북 제재가 북·중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 III. 북중 변경지역 과경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 IV. 결 론

## 〈요 약〉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중무역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 특히 북·중 변경지역의 대외개방과 과경 경제 협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 대외무역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투자 유치와 경제개발구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외화획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북한경제의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수출입상품구조의 변화와 관광활성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하여 대북 제재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sup>\*</sup>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 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5-OLU-2250001).

## I. 서론

2016년 초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하여 유엔 안보리는 2270호 결의를 통과하여 북한의 석탄, 철광석, 금, 희토류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북한에 대해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5일 상무부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품목 25종을 발표하였다. 상무부의 11호 문건에는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 등 총 20종을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항공연료를 포함한 로켓 연료 등 5종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 철, 철광석, 석탄을 수입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수입과 관련해 해당 회사 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서류심사가 복잡해 저서 기업들이 되도록 상술한 품목수입을 기피하게 되었다.<sup>1)</sup> 따라서 금년 4월부터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북·중 무역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만 본인도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된다.<sup>2)</sup>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중 무역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 특히 북·중 변경지역의 대외개방과 과경경제 협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商务部, 海关总署公告, 『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2016年, 第11号.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9770.shtml>(검색일: 2016. 5. 6).

2) 양문수, “북한경제의 변화와 대북제재”,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원 2016년, 10월호, p. 6.

대북제재가 북한 대외무역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투자 유치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 개발구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중국정부의 대북제재가 금년 4월부터 정식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다소 이를 듯 싶다. 대북 제재가 단순한 무역수치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북·중경제 협력 특히 북·중 변경지역의 변경무역, 대외개방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요해하고자 필자 일행은 금년 8월 두만강지역의 대북 통상구와 압록강 변경도로를 따라 장백현으로부터 백산시, 집안시를 거쳐 단둥까지 변경 고찰을 진행하였다. 본문은 북·중무역 수치와 현장조사에서 얻은 초보 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대북제재가 북·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특히 변경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짚어보고 최근 북·중경협의 새로운 동향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하려고 한다.

## II. 대북 제재가 북·중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 1. 북·중무역액의 감소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북·중무역 누적액은 11.97억달러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여 무역회사와 기업들이 앞당겨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2월에는 김정일의 탄생일, 4월에는 김일성의 탄생일, 5월에 열릴 당 대표 대회 개최를 위하여 허다한 물품들을 미리 수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년 4월 5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품목을 발표한 이후 북·중무역액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금년 4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22.3% 감소하였고 대북 수입은 1.5% 감소하였으며 5월 대북 수출은 12.6% 감소하였고 대북 수입은 5.9% 감소하였으며 6월 대북 수출은 3.2% 감소하였고 대북 수입은 18.6% 증가하였다. 총체적으로 금년 2분기는 2015년 2분기와 비교하면 3.7% 감소하였다.<sup>3)</sup> 금년 1~8월까지 북·중무역액은 누계로 32.97억 달러로서 작년 동기기간에 비해 7.0% 감소하였다. 그중 중국의 대북수출액은 17.78억 달러로서 작년 동기기간에 비해 3.2%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15.19억 달러로서 작년 동기기간에 비해 11.1% 감소하였다. 즉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대북수입 감소 폭이 대북 수출 감소 폭보다 더 크다.

〈표1〉 2016년1-8월까지 중국의 대북 무역 통계수치

(단위: 억달러)

월 누계	수출입총액		수 출		수 입	
	금액	작년동기 비교 (%)	금액	작년동기 비교( %)	금액	작년동기 비교 (%)
1-1	3.94	-1.4%	2.11	+1.4%	1.83	-4.4%
1-2	7.23	+1.2%	3.73	+3.7%	3.50	-1.3%
1-3	11.97	+6.2%	6.09	+8.1%	5.88	+4.2%
1-4	16.35	+1.2%	8.78	+5.0%	7.57	-2.9%
1-5	18.86	-9.3%	10.77	-1.2%	8.09	-18.2%
1-6	23.10	-9.3%	12.91	-3.1%	10.19	-16%
1-7	27.16	-11.2%	14.65	-8.4%	12.52	-14.2%
1-8	32.97	-7.0%	17.78	-3.2%	15.19	-11.1%

자료 출처: 中朝经贸合作网 :<http://www.idprkorea.com/>(검색일: 2016. 11. 5)

3) 홍제환, “대북제재 이후의 북·중교역,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6, 21호.

## 2. 북중 변경무역에 미치는 영향

장백현은 북한의 혜산과 마주하고 있는데 혜산은 김일성과 김일성 부인인 김정숙열사가 항일유격투쟁을 하던 백두산 혁명근거지로 북한의 두 번째 혁명수도로 불리우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비해 통제가 심하다. 그리고 양강도 자체가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이고 장백현 역시 길림성의 성소제지 장춘과는 500km, 연변과도 500km 떨어져 있고 현재 고속도로도 없고 기차도 없는 상태여서 내지와외의 경제적 연계가 부족하다. 때문에 북·중교역도 허다한 제한을 받고 있어 대북교역액은 3000만 달러 정도였다. 장백세관의 대북교역액이 급증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였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 중국만항 집단 산하의 중광(中矿)국제유한회사는 북한 양강도 혜산동광에 2억 달러의 큰 투자를 하였다. 물론 중간에 북한이 동광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로 중광(中矿)그룹은 큰 애로를 겪었으나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특히 2013년 김정은이 “외국과 합영한 기업들이 계약을 철저히 지킬 데 대해 지시”한 이후<sup>4)</sup> 혜산동광에서 생산된 동광은 장백세관을 통하여 중국에 수입되고 있다. 중광그룹의 동광분 수입으로 2015년도 장백세관을 통한 북·중 교역액은 1.2억 달러로 대폭 늘어나 길림성의 대북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년 8월 장백세관을 현장 조사한데 의하면 동과 아연 등은 대북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기에 장백세관의 대북 교역은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4) 자유아시아방송, “북, 구리광산 살리기에 안간힘,” 2013.8.29,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ppermine-08292013094442.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ppermine-08292013094442.html)>, (검색일: 2015. 11. 16).

장백현 경내 압록강의 길이가 200여 km이고 장백현 경내는 강폭이 좁고 물이 얕아서 관세를 피한 밀수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러한 특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장백현은 한때 “다리 위 교역 보다 다리밑 교역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밀수가 성행하였었다. 대북제재이후 중국정부가 북·중 무역에 대해 통제하게 되자 한국의 일부 매체들은 밀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필자가 현장에서 요해한데 의하면 최근년래 탈북자들 방지용으로 압록강 양쪽에는 전부 철조망을 치고 북한측은 500m 당 하나씩 초소를 세웠고 중국 측은 변경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국경경비가 삼엄하다. 특히 북한이 거액의 금액을 들여 독일로부터 최첨단 통신 교란 장비들을 구입하여 북·중 변경지역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현재 북·중 변경지역에서는 심각한 통신애로를 겪고 있다. 중국 이동통신 회사에서는 북한의 설비 보다 더 선진적인 반교란 통신장비들을 설치하여 북한의 통신교란을 극복하려하고 있어 변경에는 현재 소리 없는 ‘통신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에 밀수꾼들은 사전에 핸드폰으로 상호 연락하여 밀수를 진행하였지만 통신교란으로 상호 연락이 어렵게 되었고 정부에서 밀수에 대한 단속이 심하게 되자 기존의 밀수꾼들은 대부분이 한국 노무로 나갔고 북한쪽도 김정은 집권 이후 밀수에 대한 단속이 심하자 밀수꾼들이 적지 않게 한국으로 탈북했다고 한다.

북한의 만포시와 마주한 집안시는 현재 127개 무역회사들이 있는데 그중 70%는 대북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북 교역의 주요 품목은 목재가공제품, 기계설비, 경공업제품 등이며 대북교역액은 3,000만 달러 정도이다. 주요 교역품목이 제재대상에 속하지 않기에 대북제재 이후 변경무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북·중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창구인 단둥세관의 최근년래 대북교역액은 2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한다. 주요 교역상품은 기계설비, 방직품 원자재와 완제품 등 다양하다. 물론 대북제재에 속하는 석탄과 철광분 등은 현재 수입되지 못하고 있으나 기타 제재에 속하지 않는 물품들은 여전히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북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수입의 절반 정도 산둥성 르조항(日照港)이나 강소성의 남통(南通), 복건성의 하문(廈門) 등을 통해 수입되기 때문에 현재 북·중변경지역의 대북 무역은 많이 위축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

두만강 지역 연변의 대북무역을 살펴보면 현재 연변의 대북무역 상품에서 방직품이 30% 좌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해산물이 15%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변 훈춘시 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琿春運達針織服裝有限公司), 훈춘명옥실업유한공사(琿春明旭實業有限公司) 등 회사들은 북한 나선시의 라진혜성회사(朝鮮羅津惠勝會社) 등 기업들과 합작하여 편직물 위탁가공을 하고 있다. 편직물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큰 영향이 없기는 하나 경의 가공비의 송금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권하 통상구가 중국해관총서로부터 해산물 수입검역 통상구로 지정되어 훈춘시의 대북 수입의 가장 큰 품목은 수산물이다. 훈춘경제개발구에는 훈춘동양실업유한공사, 훈춘홍호식품공무유한공사, 연태대신 등 십 여개의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매년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대량의 해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다. 수산물은 대북제재 품목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나 문제는 대북제재로 송금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대북제재이전 두만강은행, 국제상업은행, 중화상업은행, 동대은행, 나선개발금융회사 등 다섯개의 중국계은행들이 북한의 나선시에 진출해 무역과 투자, 인민폐 과경업무 취급 등 여러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대북제재로 은행들이 철수에 직면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이미 철수하였다고 한다.

### 3. 대북제재가 대북투자에 미친 영향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2008년을 기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015년 말 현재 중국상무부에 등록된 북한에 직접 투자한 기업은 누계로 186개이며 그중 길림성의 대북투자기업은 79개, 요녕성이 66개로 가장 많다. 물론 많은 기업들은 보상무역방식과 위탁가공무역 형태를 취하고 소형기업들은 중국상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투자한 기업수는 이 수치에 비해 훨씬 많을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대북투자는 대부분이 기계, 설비 등 형태로 투자하고 생산된 제품이나 기타 제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중국 상무부에서 석탄, 철광석 등 광산물수입 금지규정을 내린 후 기존에 투자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2000년대 북·중 경협은 무역과 투자가 상호 촉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중국기업들의 북한의 광산에 대한 투자로 석탄과 철광분의 대중 수출이 확대되었고 수출 증대는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대북제재로 새로운 투자가 없게 되면 무역액의 감소는 필연한 추세로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중 무역액을 대북제재 효과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지만, 기실 제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분야는 투자영역이다. 이는 향후 북·중 경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그 영향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향후 오래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본다.

### Ⅲ. 북중 변경지역 과경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 1. 두만강 지역 과경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 (1) 두만강 해상운송통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길림성은 바다로 나가는 직접 통로가 없다. 90년대 이래 중국은 두만강 해송운송 통로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만강하구와 인접한 북한의 나진항은 중국동북 지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국제물류운송 통로의 구축은 중국이 동해로의 새로운 출해구를 개척하여 동북아지역 물류운송의 주도권을 쟁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과 남방연해지역을 연결하는 과경 물류운송통로의 개척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두만강지역에서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실시하여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르비노 항구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2008년 7월, 중국대련창리그룹(創立集團)은 북한강성무역회사와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나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sup>5)</sup> 2,6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나진항 1호 부두에 연간 15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정박지 보수공사를 마쳤다. 이 회사는 나진항을 통해 동북지역의 석탄, 농산물을 중국남방지역으로 운송하는 국내무역과경운송 통로를 구축하였다. 2015년 12월 7일에는 훈춘-나진항 1호 부두를 통해 한국 농심 그룹에서 생산한 백두산 광천수를 한국부산항으로 운송하였다. 현재 한국 농심그룹은 연변주 안도현에 백두산 광천수 공장을 설립하고 연간 생산량이 125만톤에 달하는데, 대량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훈춘~나진항~부산항으로의 운송통로를 이용하면 1,200km(백두산~훈춘~나진항=250km, 나진항~부산항=950km, 도합 1,200km)거리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해 현재 북한 나진항을 경유할 수 없게 되어 금년 5월에는 대련항을 통해 부산항으로 운송하였다. 먼저 철도를 통해 바이허(白河)역~대련 다요완항(大窑湾港)1,000km, 대련항~한국 부산항까지 1,000km로서 도합 2,000km로 나진항을 통해 운송하기 보다 800km가 더 먼 거리로써 운송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길어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렵게 개척한 나진항을 통한 두만강지역 해상 운송 통로가 언제 다시 활성화 될지 미결이다.

## (2) 중 · 조 나선경제합작구 건설이 영향을 받음

2011년 6월 9일 중국과 북한은 나선에서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착공식을 가졌다. 2011년 7월 26일 중국 지린성과 북한 나선특별시는 장춘

5) 『黑龙江日报』, 2010년 3월 8일.

에서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관리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중·조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계획 틀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sup>6)</sup> 이 기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경내 인프라 건설을 완성하고 2016년부터 경외 인프라를 (북한의 도로, 철도, 항구, 전력, 통신 등) 집중 건설하기로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 기획은 현재 진전이 더딘 상태이다. 현재 나선지역에 총 21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그중 80%가 외자기업 (대부분이 중국기업)들이다. 현재 나선지역은 자체의 발전능력 제한으로 하루에 송전이 6시간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을 보장할 수 없다. 중국정부에서는 훈춘지역의 전력을 나선으로 송전하기로 기획하고 2013년 1월에 총 투자액이 2.88억 위안에 달하는 훈춘-나선 동해 66KV 송전선로 건설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이 송전선로 66KV의 총길이는 92.5km(중국구간이 52km, 북한구간이 40.5km) 총 123개의 전선대가 이미 전부 세워진 상태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송전을 못하고 있어 나선지역에 투자한 중국기업들은 여전히 전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태 시멘트는 2011년에 착공식만 하고 현재 투자 정지상태이며 북방시멘트<sup>7)</sup>도 자체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여 분말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 (3)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건설이 영향을 받음

2015년초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두만강 삼각주에 국제관광합작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훈춘시 경신진, 러시아의 하산, 북한의

6) 『길림신문』, 2011년 7월 26일.

7) 2013년 9천만위안 투자, 연간 분말 시멘트 60만톤 생산할 기획임, 북방시멘트 회사 내부 자료

두만강리 각각 30km<sup>2</sup>, 총 기획면적이 90km<sup>2</sup>지역에 3자 협력방식으로 3단계 나뉘어 국제관광합작구를 건설하려고 기획하였다. 2015~2017년 기간 중국 측은 우선 경신에서 방천으로 통하는 구역을 돌파구로 기획을 편성하고 국가의 정책혜택을 지원받아 기초시설을 집중 건설하고, 2018~2020년 기간은 다국적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북한의 두만강리와 러시아 하산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2020년에는 세 지역을 통합하여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를 최종 건설하려고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북제재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국제 관광합작구 건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1〉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출처: 훈춘시상무국.

#### (4) 북중변경지역 과경경제협작이 영향을 받음

2013년 4월 북한은 온성관광개발구를 설립하였다. 온성섬은 연변주 도문시 양수진 하서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만강이 경로를 바꾸는 통에 육지로 중국 측에 잇닿아 있다. 2013년 12월 25일 도문시는 북한과 온성섬 개발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도문시에서는 온성섬의 1.7km<sup>2</sup>, 중국의 3.68km<sup>2</sup> 지역을 통합하고 50만원을 투자하여 이곳에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민족 음식점 등 시설을 건설하여 이곳을 과경 관광구로 건설하려고 이미 초보적인 기획을 세웠으나 목전 현실에서 투자유치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13년 4월 북한은 함경북도에 어랑 농업개발구를 설립하였다. 용정시삼합으로부터 북한의 청진까지는 87km, 청진에서 어랑까지는 65km, 총 152km의 거리로서 연변의 대북경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창구이다. 용정시에는 국가 농업과학기술개발구의 유리한 정책적 우세와

〈그림2〉 온성섬 국제관광합작구



출처: 도문시 양수진 온성섬 개발 홍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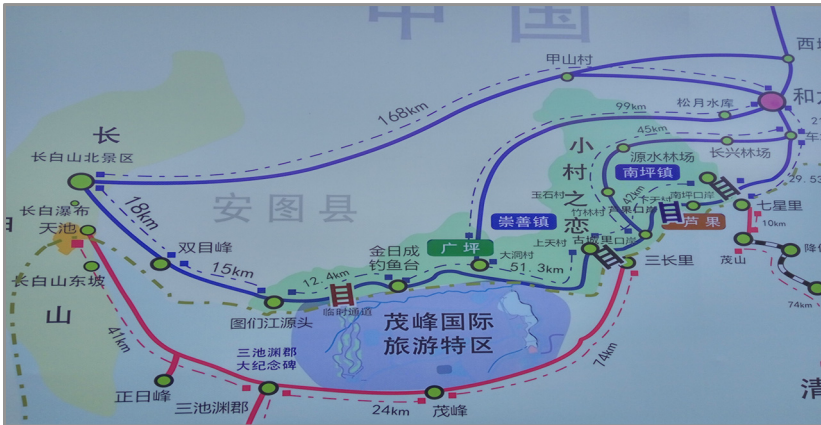
연변의 농업 기술자원을 이용하여 북한의 어랑 농업개발구와의 경제협력력을 추진하기로 기획하고, 2014년 봄에 용정시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어랑 농업개발구를 방문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로 현재 기획만 세우고 실제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2015년 4월 22일, 북한은 양강도 삼지연군에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설립하였다. 무봉은 연변자치주화룡시 송선향 고성리통상구에서 백두산 동쪽비탈을 통해 천지에 오르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무봉국제관광특구의 면적은 80km이다. 북한은 화룡시에 20km에 달하는 지역을 무상으로 50년간 개발권, 경영권, 사용권을 향유하도록 허가했고 또 첫 10년은 각종 세금과 비용을 면제한다는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였다. 화룡시는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며, 광동성 썽툰투자회사를 유치하여, 2015년 9월부터 무봉을 통한 백두산 관광을 개시하였다.<sup>8)</sup> 무봉을 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것은 기존에 삼지연을 통해 천지에 이르는 것보다 70km 단축된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는 향후 백두산 관광객들을 상대로 온천호텔, 기마장 등 관광시설을 건설하여 백두산의 신비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아시아지역의 고급 관광중심으로 건설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유의 상황에서 외자유치의 어려움으로 관광특구 건설은 차질을 빚고 있다.

2015년 3월 3일, 중국국무원에서는 화룡변경경제합작구를 비준하였다. 국가 급 변경경제합작구는 연변에 훈춘변경경제합작구와 이번엔 비준한 화룡변경경제합작구 2개 뿐으로서 여러면에서 정책적 혜택이 많다. 화룡변경경제합작구는 남평통상구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8) 김청수, 김성걸, “화룡, 조선의 무봉국제관광특구 50년간 사용키로”, 『길림조선문보』, 2016년 8월 30일.

〈그림3〉 중국송선- 북한무봉 다국관광합작구



출처: 화룡시 상무국.

북한의 무산광산과 8km의 거리로서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의 또 하나의 전초 기지이다. 화룡시에서는 국가에서 변경경제합작구에 실시하는 정책적 혜택을 적극 이용하여 대량의 기업들을 변경경제합작구에 유치하여 이 지역에 복장생산과 기계제조, 전자, IT 등 노동밀집형생산 단지를 건설하고 이지역의 유리한 대외창구 통로를 이용하여 대외 수출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화룡시에서는 이미 6억위안을 투자하여 4.27km<sup>2</sup> 토지를 농민들로부터 매입하고 부지 평정을 마치고 합작구내에 대외로 통하는 4개 도로를 닦고 기초시설 건설을 시작하였다. 2016년 8월 28일에 연길시에서 개최된 두만강 무역투자 박람회에서는 글로벌 길림상공인연합회, 광동성길림상회, 상해동양무역유한회사 등 6개 회사와 28억위안에 달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sup>9)</sup> 그러나 북·중 관계 정색으로 투자유치가 그다지 순조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

9) 앞의 글.

하고 있다.

2010년 12월 31일에 착공식을 하여 2014년 10월에 완공된 신압록강 대교는 기존의 압록강 철교에서 10km 아래편에 위치해 있으며 대교의 총길이는 3km, 넓이는 33m, 왕복 4차선이다. 중국은 대교 건설에 소요되는 전부 자금(18억위안)을 투자하였고 현재 신 압록강 대교는 북한경내에서 마무리작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은 신 압록강 대교와 평양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신 압록강 대교 개통에 대비한 세관과 물류센터 건립 등이 되지 못해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6월 7일 중국과 북한은 황금평 경제구 개발착공 의식을 거행하였다. 중국은 홍콩의 신형지(新恒基)국제그룹에 황금평개발을 의뢰하였으며 제1단계에 1.6km<sup>2</sup>를 개발하여, IT 산업, 경공업, 현대농업, 서비스업과 관광업 등 5대 산업을 집중 발전시키기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사건 등으로 황금평 개발은 기획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 8월 현재 황금평 개발은 관리위원회 빌딩만 완공되고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은 상태이다.

단동시에서는 북·중 경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절강성 모 민영그룹에 위탁하여 10억위안 인민폐를 투자하여 단동시에 호시무역시장을 건설하였다. 2015년 8월 22일에 호시무역시장이 완공되어 정식으로 개장하였는데, 목전 호시무역시장은 아래와 같은 애로점에 부딪치고 있다.

첫째, 호시무역시장 진입주체이다. 호시무역의 본 개념은 변경지역 20km 내 변경주민들을 대상으로 호시무역시장에 진입하는 변경지역주민들에게 8,000원 인민폐의 면세혜택을 주기로 규정되었는데, 북한의 체제하에서 일반 주민들은 중국경내의 호시무역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입할 수 있는 것은 회사들 뿐 이나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호시무역규정에 어긋난다. 호시무역시장 운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중 쌍방이 공동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중국측의 주체는 민영기업이고 북한측은 정부이기에 대등한 입장이 아니어서 협상이 어렵게 되었다. 이는 북한과 같이 특수한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정부 인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호시무역시장은 상호 물품을 교환하는 장소이나 북·중무역에서 북한이 대중국 수출의 주요제품인 광산물 등은 호시무역 범위에 속하지 못하기에 북한이 호시무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품이 제한적이다. 지난 1997년 6월, 연변주 훈춘권하통상구 건너편 원정리 세관부근에 3만 km<sup>2</sup> 면적의 북·중 호시무역시장이 개장되었다. 매주 4일 개장하고 훈춘시 주민들은 매일 3,000위안에 해당되는 상품을 지니고 무관세로 호시무역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초기에 매일 호시무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인원을 쌍방 각각 50명으로 제한하던 것이 나중에는 150명까지 허용하였고 가장 많을 때에는 500명 정도 진입하여 호황을 이루었다. 당시 원정리 호시무역시장은 중국상품의 중요한 진입 창구로서 일일 교역액이 40~60만위안으로 호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하여 북한측에서 호시무역 시장으로 갖고 나올 물품 부족으로 단순히 중국인들이 팔고 북한인들이 사는 일방교역으로 변하였다. 북한인들이 외화로 중국물품을 사게 되자 북한측은 호시무역시장에서 외화사용을 금지하였다. 결국 이 호시무역시장은 개장 2년만에 1999년 5월에 자동으로 폐장되었다.<sup>10)</sup> 원정리 호시무역

10) 림금숙 저, 『현대조선경제』,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11), p. 91.

시장은 북한경내에 유일하게 설치되었던 북·중 호시무역시장이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호시무역시장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양국의 경제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북·중간 경제력 차이는 향후 호시무역시장 운영에서 커다란 장애로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동시에서는 호시무역의 정책적 혜택을 이용하여 가공무역구를 운영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현유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투자유입이 어렵게 되었다.

집안시는 북한의 자강도와 마주하고 있어 변경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북·중교역과 투자가 유리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여러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주로는 자강도가 북한의 중요한 군수공업 기지로서 경비가 삼엄하여 세관을 넘고도 자강도내에 여러 곳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어 매 초소마다 통행 검사를 거쳐야 하기에 만포를 거쳐 기타 지역과의 무역은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2013년에 북한은 만포경제개발구와 위원경제개발구를 설치하여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군사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다 집안시 기존의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대부분 실패로 이어져 현재 북한 경제개발구의 투자유치는 인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집안과 만포시를 잇는 국경다리는 지난 30년대 일본이 건설한 것으로 많이 노후되어 중국은 그동안 몇 차례나 전부 비용을 중국이 부담하고 재건축하려고 북한에 건의하였지만, 북한이 동의하지 않아 시종 새 다리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1년 5월, 북한 만포시 인민위원회는 중국 지안시를 방문하여 두만강 하중도(河中島)인 별등도(筏登島) 합작 개발, 북한 만포시 1일 관광, 압록강 국경도로 대교 건설 등 경제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12년 5월, 중국과 북한은 “만포~지안

(集安) 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만포~지안 간 국경도로대교는 투자비용이 약 4억위안 (인민폐)이며, 연간 화물처리 능력은 50만톤, 여객통과량은 약 20만명이다.<sup>11)</sup>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북한은 전부 비용을 투자하고 3천여명 군인들을 동원해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던 새 다리를 1년 사이에 전부 완공하였다. 이는 북·중 전체 변경다리 중 유일하게 북한이 전부 부담하고 건설한 다리이다. 현재 집안시에서는 국경다리 부근에 국문을 건축하고 있으며 그 부근에 국가 급 변경경제합작구를 건설할 계획을 하고 적극 신장 중이다.

## 5. 국제재제 속에서 북·중경협의 새로운 동향

### (1) 북·중무역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금년 상반기 북·중무역의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북 수출 중 작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물품은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이고 대북 수입 품목 중 남성재킷, 여성재킷, 여성코트 등 복장의류 제품들은 작년 동시기에 비해 41.2%, 26.6%, 19%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이 합성 필라멘트사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년래 북·중 간 무역에서 합성필라멘트사 수출과 복장 의류수입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상품들 예하면 수산물은

11) <http://www.jilin.gov.cn/read.asp?xwid>(검색일: 2015. 1. 15).

12.7% 증가했으며, 아연광은 273% 증가, 아연괴는 13.2% 증가했다.<sup>12)</sup> 즉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무연탄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의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수출입 상품구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복장의류 가공무역, 해산물 등 제재 대상 외 상품수출 증가를 통하여 기존의 주력 상품이었던 석탄과 철광분 수출의 감소를 미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할 것은 2016년 들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굴착기, 대형트럭, 소형자동차, 태양발전기 설비 등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쉬공(徐工)기업은 권하 통상구를 통해 북한에 15대의 대형 굴착기와 10대의 대형 트럭을 수출하였고 3월에는 권하통상구를 통해 나선에 2,250만 달러의 태양발전기 설비들을 수출하였으며 5월에는 권하통상구를 통해 중국제일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위이즈(威志)소형 자가용차 35대(한대 당 6,400달러)를 수출하였으며 향후도 지속적으로 수출 할 예정이라고 한다.<sup>13)</sup>

## (2) 북한은 관광업활성화에 주력

연변지역의 대북관광주요 루트로는 훈춘 나진 - 관광(70%), 삼합-칠보산 버스관광, 하이화 그룹이 운영하는 도문 - 칠보산 열차관광, 고성리 - 삼지연(백두산 남쪽)백두산천지, 고성리 - 무봉 - 백두산천지 (2015년 10월에 무봉 관광특구 설립이후 개시되었음), 천우그룹이 운영하는 연길-평양 전세기관광 등이 있는데, 연변지역의 대북 관광은

12) 앞의 글.

13) 훈춘시정부 홈페이지(<http://www.hunchun.gov.cn/>)(검색일: 2016. 5. 20).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환경에서 금년 들어 다소 위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왕년에 7월초부터 운행되던 연길-평양 전세기가 올해는 모종 원인으로 늦어져 9월부터 운행한다고 한다.

두만강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금년 7월 12일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은 중-러-북 다국관광 노선 개통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정식으로 이 코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노선은 이미 몇 년 전에 답사를 진행했었으나 정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측에서 매우 주동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나진항에 있는 만경봉호 유람선으로 이 코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예전에 원산-일본행으로 이용되던 만경봉호 유람선은 1인, 2인, 4인, 8인용 등 객석으로 나뉘고 총 200명 여객이 탑승 가능하며 식당, 스탠드바, 오락실 등도 있으며 금년 8월 10일 시범운행하기로 하였다.<sup>14)</sup>

단동은 단동-평양 열차가 통하기에 중국의 대북관광의 가장 큰 창구로서 연간 관광객이 9만명 정도이다. 중국의 대북관광의 가장 큰 애로점은 비자 받는 시간이 평양코스는 5일 정도, 맞은 편 변경도시는 최저 2일이 걸려서 단동에 온 내지 관광객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한다. 기존에 북한은 호텔 숙박시설 등을 고려하여 중국관광객 인원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나 금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주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금년 7월 9일부터 북한은 중국 단동시와 북한 신의주간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였다. 중국관광객들은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갈 수 있고 오후에 신청하면 이튿날에 나갈 수 있으며 하루 비용은 350위안(인민폐)으로 신의주 1일 관광을 할 수 있다. 이전과 비교해 수속시간이

14) “두만강지역 다국관광로선 개통”, 『연변일보』, 2016년 7월 30일.

짧고 편리하며 여행비용이 저렴하여 여름철 단동지역을 방문한 국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올해 들어 북한은 북·중 관광활성화를 위해 동북변경지역을 제외하고 중국 내지도시와의 항선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베이징, 상하이, 쑤양 등 지역에 정기항선을 개설함과 아울러 2016년 5월 23일 북한의 고려항공은 평양-청도(靑島)항선, 5월 31일에는 평양-제남(濟南) 항선을 개설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산서태원(太原)-평양 항선을 운영하여 중국내지 특히 남방지역의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해 비자수속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IV. 결 론

금년 초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중 경제협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상무부가 대북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한 4월부터 북·중 무역액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대북투자와 변경지역의 과경경제협작구 건설 더나아가 북·중 변경지역의 대외 개방과 지역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특히 중국의 동참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감소되고 있으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은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외화획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북한 경제의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0년대 북한경제는

연속 9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고 1996년 식량생산량은 240만톤, 대외무역액은 19.6억 달러까지 하락했었고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을 진행하였다. 즉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해 왔고 2000년대의 경제회복을 통해 현재는 90년대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 금년 4월 북한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이기성 교수가 연변대학 방문시 특강에서 밝힌 수치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7% 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 2014년 경제성장률은 7%에 이른다고 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출마한 이래 북한은 대내로는 “6.28지시” (2012년), “5.30조치” (2013년) 등 일련의 경제개선 조치들을 취하고, 대외로는 2013년 이후 연이어 21개의 경제개발구와 특구들을 설립하였다. 2016년에는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실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과학기술, 건설 분야에서 일련의 실용주의적인 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의 경제개혁적인 조치가 김정일 시대보다 진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은 국산화 및 수입품 대체를 강조하고 식품가공업, 복장신발 등 경공업영역에서 국산화가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실시된 이후 북한은 대내로는 대중동원 수단과 시장 활성화 등 방법, 대외로는 수출입상품 구조의 변화와 관광활성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하여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태풍의 영향으로 두만강이 홍수가 범람하여 함경북도 무산, 회령, 온성 등 변경지역에서 큰 피해를 보았지만, 북한정부는 이미 피해 복구작업에 전국적으로 10만명 인력을

동원하였고 작년 나선흥수피해를 잘 극복한 것처럼 이번에도 나름대로 극복해 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시 이후 현재 북한시장에서 쌀과 환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북한이 내재적 위기 대응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중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민생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의 적용과 중국 지방정부의 제재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라고 분석한다. 해결 대안은 먼저 민생품목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제재품목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교역을 금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북한의 석탄, 철광석, 철 등의 수출이 막히는 셈인데, 만약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외화수급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15)</sup>고 지적하였다. 즉 모든 석탄과 철광석 수출 금지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 모든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여 북한이 과연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까? 2015년 수치를 보면 북한이 대중국 석탄수출이 10.5억 달러 철광석 수출이 2.04억 달러로서 <sup>16)</sup>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2억 달러이다. 북한이 대외무역액이 12억 달러가 감소된다고 해서 핵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민생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석탄과 철광석 교역이 대부분이 외화로 결제되지 않고 물물교환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현장에서 요해한데 의하면 철광석의 경우 북한광산의 채광설비와 광산노동자들의 식량, 일용품등으로 물물교환

15) 이종규, “향후대북제재의 방향, 북중교역을 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원 2016년, 10월호, p. 46.

16) 한국코트라, <<http://www.kotra.gov.cn>>(검색일: 2016. 6. 3).



방식을 채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석탄과 철광석이 무조건 외화벌이 대상이 된다는 지적은 실제 근거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중 교역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기대치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한다는 목표는 현실화 되기 어렵다. 북한은 그 어떠한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인 대안은 협상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 [ 참고문헌 ]

- 림금숙 저. 『현대조선경제』,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11.
- 홍제환. “대북제재 이후의 북중교역,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6, 21호.
- 이종규. “향후대북제재의 방향, 북중교역을 중심으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원 2016년, 10월호.
- 양문수. “북한경제의 변화와 대북제재”,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원 2016년, 10월호.
- 김청수·김성길, “화룡, 조선의 무봉국제관광특구 50년간 사용키로”, 『길림조선문보』, 2016. 8. 30.
- 『黑龙江日报』, 2010년 3월 8일.
- 『길림신문』. 2011년 7월 26일.
- “두만강지역 다국관광로선 개통”, 『연변일보』, 2016. 7. 30.
- 商务部海关总署公告, 2016年, 第11号 “关于对朝鲜禁运部分矿产品清单公告”,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9770.shtml>
- 훈춘시정부 홈페이지<http://www.hunchun.gov.cn/>
- 자유아시아방송, “북, 구리광산 살리기에 안간힘,” 2013.8.29,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ppermine.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ppermine.html).
- 한국코트라. <http://www.Kotra.gov.cn>.